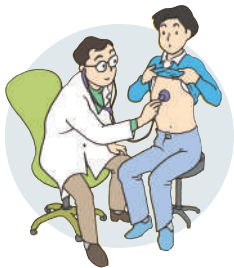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이용자 의사소통 지원 매뉴얼

응급진료 이용(의료진용)





응급진료 이용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매뉴얼

제1장 응급진료 이용 의료진용 매뉴얼 _ p.03

제2장 응급진료 이용 발달장애인 당사자용 매뉴얼 _ p.09

제1장

응급진료 이용 의료진용 매뉴얼

의료인용 발달장애인 응급의료센터 진료 안내서(안)

- o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합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o 장애인에게는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 복지카드는 주민등록증과 같이 공적인 신분증으로 유효합니다.
 - 복지카드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복지카드에는 장애 유형도 적혀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을 묶은 개념이기 때문에 복지카드에는 발달장애라고 표기되지 않고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장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발달장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 복지카드에 정신지체, 발달장애로 표기된 명칭은 2007년 이전 등록 범주입니다.
- o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다르지만 자폐성 장애인의 70%는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본 안내서에서는 발달장애라고 부르고 이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진료하면 좋은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다만, 이들의 유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은 저마다 독특한 특성과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상황에 따라 응대하시면 됩니다.
- o 신체장애인의 편의증진은 휠체어, 수어, 점자 등 물리적인 편의지원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스펙트럼이 다양하여 이해하기 쉬운 문서, 사람을 통한 관계적 편의지원이 필요합니다.

◆ 응급의료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지원하기

- 주 보호자나 지원자를 식별 하고 가능한 빨리 연락합니다. (신분증 확인, 보호자나 주로 다니는 기관 문의)
- 발달장애인이 혼자 온 경우는 진료와 검사에 보조인력 지원을 배치합니다.
- 발달장애인 의사전달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과거 질병이나 알러지 등 확인)
- 혼잡한 장소를 피합니다. 기다릴 조용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 불안감이나 혼잡한 상황으로 도전적 행동(자해, 타해, 소리 지름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을 유지하고 보호자(지원자)에게 대처방법을 묻습니다.
- 위협하지 않으나 지속적인 상동행동과 반항어를 사용하는 경우 제지하거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 갑작스런 신체적 접촉이나 너무 가까운 거리는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화나 관찰의 경우 적절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 당사자가 이해하거나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 발달장애인의 경우 필요시 더 많은 보호자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 발달장애인과 이렇게 의사소통하면 좋습니다.

1. 각자 다른 의사소통 방식

- 많은 발달장애인은 말이나 음성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발달장애인들은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표정으로, 어떤 몸짓으로 자신의 좋고 싫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읽어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의 많은 경우에는 각자 다른 의사소통방식을 갖고 있음을 알면 좋겠습니다.
- 내방한 발달장애인 환자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지 등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부모, 복지관 직원 등)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 또 좀 더 친해지면 의사소통이 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2. 발달장애인은 소음과 감각자극이 많은 환경을 어려워 합니다.

- 발달장애인은 소음이나 빛 등 여러 자극을 받으면 힘들어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많은 사람이 있는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는 불안증이 높아지고 의사소통이 더 어렵습니다.
- 발달장애인에게는 응급의료센터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로 진료 위치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 누구나 그렇듯이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귀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따르게 됩니다.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 응급의료센터는 비장애인에게도 위기 상황이고 혼란스럽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렇습니다. 또 발달장애인들은 낯선 환경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은 2중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발달장애인을 만나자마자 평소대로 바로 진료에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사선생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걸어주고 그 발달장애인 환자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라포르(Rapport)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또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진료를 진행하기 보다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자신이 자신에게 이해시키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4. 표현은 쉽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 소통이 어려운 경우 시각적 자료나 글로 써서 소통을 시도합니다).

- 이중부정 표현을 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돼!”라기 보다는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 은유적 표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상태가 심각하지 않네” 라기 보다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합니다.
- 가급적 한 문장에서 한 가지 정보만 제공하면 좋습니다.
 -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어요”라고 하기 보다는 “움직이지 마세요” “누워 있어요”라고 정보를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 진료과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1. 응급의료센터 진료 순서는 위급한 사람순서 임을 알려 줍니다

- 더 많이 아파서 더 빨리 치료해야 하는 사람을 먼저 진료한다고 알려줍니다.

2. 응급의료센터의 협조사항을 부탁드립니다.

- 조용히 앉아/누워 있습니다.
 - 사람이 많고 침대가 수시로 이동하여 부딪치면 다치므로 더 아플 수 있습니다.
- 의료 기구와 다른 사람을 만지지 않습니다.
 - “의료기구 만지면 나쁜 세균이 생긴다. 여기는 너무 아파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말하는 것도 힘드니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

3. 라포르 형성을 위해 이름을 부르고 격려해 줍니다.

- 발달장애인 환자의 이름을 불러주면 좋습니다.
- 치료와 검사를 하면 아프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심어 줍니다.
-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줍니다.

4. 미리 예측하게 해 주면 좋습니다.

- 진료와 치료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미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걸 하는지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 “상처를 소독합니다. 좀 따끔거릴 것입니다”
 - “혈액검사를 해야 합니다. 피를 조금 가져가서 왜 아픈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사 맞는 것과 비슷합니다.”
 - “뼈가 다쳐서 뼈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사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사진이 이쁘게 잘 나옵니다.”
 - “몸에 나쁜 균이 있는지 소변검사를 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오줌)을 종이컵에 받습니다.”
 - “이제 마취 할게요. 따끔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상처가 안 아플 수 있어요”

5. 퇴원 후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알려 줍니다.

- 말 보다는 글로 알려 줍니다. 중요한 것은 빨간색을 표시해 줍니다.
- 집에 가서 조심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목욕 하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등)
- 투약이 있으면 복용 방법을 알려 줍니다.
-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면 언제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택상 달력이 있으면 그 날짜에 표시하여 줍니다.)

◆ 검사가 진행되면 이렇게 안내하면 좋습니다.

-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내용과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 검사는 아픈 곳을 잘 찾기 위해서 알아보는 것임을 설명해 주세요
- 검사 종류별 자세한 대처방법은 “의료인용 발달장애인 건강검진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서에 소변검사, 혈액검사, 혈압검사, 흉부검사, 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액 검사 안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액 검사

- 혈액 검사는 주사기가 사용되기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정서적으로 힘들음을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해주며, 최대한 안정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감정적으로) 두렵지요? 저도 무서운데 조금만 참고 움직이지 않으면 빨리 끝나요”
- 안전함을 알려주고, 피검진자가 준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하고 본인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 처음부터 토니켓을 사용하여 묶지 않고, 혈관상태를 파악하여 가능하면 교류와 설득을 통해 진행합니다.
- 혈관상태를 확인하고 일반적인 바늘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면 필요에 따라 ‘나비바늘’을 사용합니다.
- 바늘이나 주사기가 보이지 않도록 연결하여 테이블 아래에 두고 진행하고, 피검진자가 바늘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게 고개를 돌리거나 함께 오신 분, 다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의를 환기하며 채혈을 진행합니다.
-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을 시연해 줍니다.
- 검사 후에 지혈하기 위해 누르도록 설명해 주고, 어려울 경우 팔을 접거나, 솜 위에 밴드를 감아 넓게 붙여줍니다.

제2장

응급진료 이용 발달장애인 당사자용 매뉴얼

의료환경 기반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매뉴얼 개발 연구

응급실 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책 소개

- 이 책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 이 책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발달장애인이 좀더 쉽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 이용 방법

- 이 책은 응급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줍니다.
- 이 책은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응급실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 이 책을 부모님이나 가족, 도와주는 사람과 같이 보면서 응급실 이용에 대해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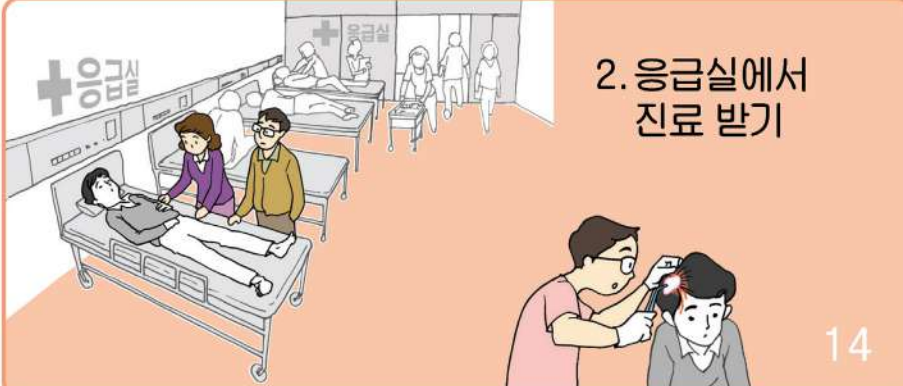
1. 응급실 이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6



2. 응급실에서
진료 받기

14



3. 응급실 나와서
해야 할 것

26



응급실 이용에 대해 알아보시다

1

응급실 이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 응급실에서는 언제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실은 많이 아파서 급하게 치료받아야 할 때 이용합니다
-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에 가기
- 119구조대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것
- 가까운 응급실 찾아서 가기
- 응급실에는 보호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응급실 이용하기

1. 응급실 이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응급실에서는 언제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은
급하게 치료받아할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	4	5	6	7
10	11	12	13	14
17	18	19	20	21
24	25	26	27	28

병원이 문닫은
일요일이나
달력에 빨간 날에도
치료를 합니다.



응급실은
밤에도 치료를 합니다.

응급실은
24시간 언제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하기

1. 응급실 이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7

응급실은 많이 아파서 급하게 치료받아야 할 때 이용합니다



응급실은
많이 아파서
급하게 치료받아야 할 때
이용합니다



숨 쉬기가 어려워서
급하게 치료받아야 할 때
이용합니다.

서 있기 어렵거나 쓰러져서
급하게 치료받아야 할 때
이용합니다.

사고로 상처가 나서
급하게 치료받아야 할 때
이용합니다.



치료가 급하지 않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내가 자주 가는 병원을
이용합니다.



응급실 이용하기

1. 응급실 이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8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에 가기



**너무 아파서
빨리 병원에 가야할 때**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고로 상처가 나서
빨리 병원에 가야할 때**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하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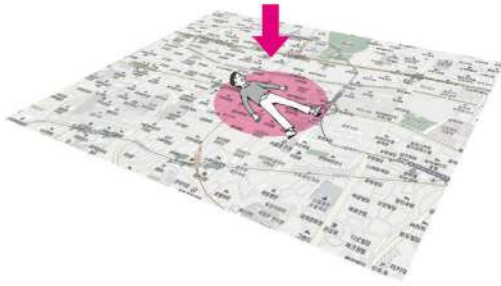
**빨리 병원에 가야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119에 전화해서
아픈 것을 이야기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 장소를
알려줍니다.



주소를
알려줍니다.



주소를 모르면
근처의 가게 이름이나
건물 이름을 알려줍니다.



스마트폰의 위치를 켜 놓으면
내가 있는 장소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하기

1. 응급실 이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119구조대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것



119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전화로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립니다.



자리를 옮기면 119구조대원이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119구조대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19구급차 안에서는 움직이면 안됩니다.



무섭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119구급대원에게 말합니다.



응급실 이용하기

1. 응급실 이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가까운 응급실 찾아서 가기



일요일이나 달력의 빨간 날
병원이 문 닫았을 때

응급실을 이용합니다.



119나 1339에
전화로 물어보면
가까운 응급실을
알려줍니다.



인터넷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응급실 찾기]에서
가까운 응급실을
알 수 있습니다.
(www.e-gen.or.kr)



스마트폰에
《응급의료 정보제공》을
설치하고, 검색하면
가까운 응급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하기

1. 응급실 이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응급실에는 보호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응급실에는
보호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가면
진료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혼자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갔다면,
보호자에게
응급실로 와 달라고
연락해야 합니다.

* 보호자: 가족, 친척,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직원



내가 직접 연락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호자의 연락처를
직원에게 알려줍니다.

응급실 이용에 대해 알아보시다

2

응급실에서 진료 받기

- 응급실에서 지켜야 할 것
- 진료신청서를 씁니다
- 응급실은 급한 환자를 먼저 치료합니다
- 간단한 검사를 받습니다
- 상처를 치료 받습니다
- 검사를 받습니다
- 씨티(CT) 검사 받기
- 몸 아픈 것을 진료받습니다
- 의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 진료비를 냅니다



응급실 이용하기
2. 응급실에서 진료 받기

응급실에서 지켜야 할 것



응급실은
많이 다치거나
빨리 치료해야 할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응급실에서는
조용히 말합니다.



다른 환자에게
말을 걸거나
몸을 만지지 않습니다.



의료 기기나 약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보호자는 2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출입증을 받아야 합니다.



응급실 이용하기
2. 응급실에서 진료 받기

15

진료신청서를 씁니다

진료신청서	
환자번호	진료과
환자명	
주민번호	
연락처	본인 (보호자)
주소	
* 병원에 입원 후 소견 및 진단서 등은 주선에게 발령해 주십시오.	
+ 진정병원	



진료신청서를 씁니다.

진료신청서는 내가 쓸 수도 있고
보호자가 쓸 수도 있습니다.



진료신청서를 쓰기 어려우면
간호사에게 도와 달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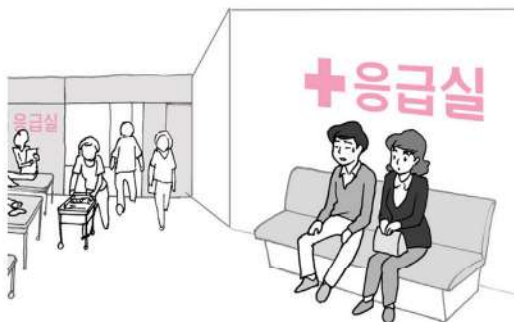
이름과 생일을 말합니다.

말하기 어려우면,
주민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보여 줍니다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말하기 어려우면,
연락처가 써 있는 물건을 보여줍니다.



접수가 끝나면,
치료 순서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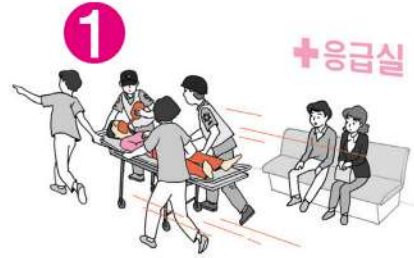


응급실 이용하기
2. 응급실에서 진료 받기

응급실은 급한 환자를 먼저 치료합니다



일반병원에서는
접수한 순서대로 치료받지만,



응급실에서는
아주 많이 아픈 사람을 먼저 치료합니다.



아주 많이 아픈 사람은
나보다
응급실에 늦게 왔더라도,
나보다 먼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아픈 사람이
치료받는 동안
나는
오래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너무 아프거나 너무 힘들면
간호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응급실 이용하기
2. 응급실에서 진료 받기

간단한 검사를 받습니다



진료받기 전에
간단한 검사를
먼저 합니다.



몸 온도를 잹니다.



혈압을 잹니다.



몸에 상처가 있는지
피부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아픈 곳을 살펴보기 위해
내 몸을 만질 수 있습니다.
내 옷을 올리거나 옷을 벗길 수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의 말에
따라야 합니다.



응급실 이용하기
2. 응급실에서 진료 받기

상처를 치료 받습니다



기다리다가
내 치료 순서가 되면,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합니다.

의사에게
내 상처를 보여줍니다.



의사에게
내가 어떻게 다쳤는 지,
얼마나 아픈 지 말해주면

의사가
내 상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상처는
바로 치료해 줍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릅니다.



상처에 붕대를 감아
보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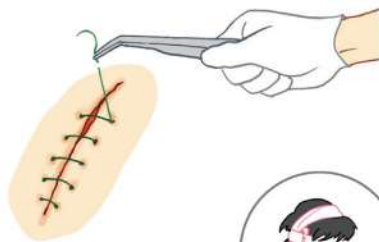
(간단한 상처 치료 끝)



큰 상처 치료할 때는
치료하는 게 아프지 않도록
마취를 합니다.

마취 주사를 맞을 때
조금 따끔합니다.

마취를 하면
치료하는 게 아프지 않습니다.



상처를 껴맵니다.



상처에 붕대를 감아 보호합니다.

(큰 상처 치료 끝)



내가 아픈 것을
좀더 정확히 알기 위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하기
2. 응급실에서 진료 받기

검사를 받습니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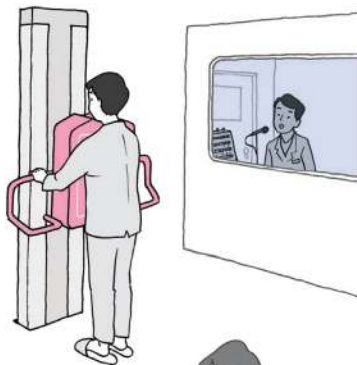
피 검사(혈액검사)

간호사가 내 피를 조금 뽑습니다.
피를 검사해서
내가 아픈 이유를 알아봅니다.



소변 검사

종이컵에 내 오줌을 담아서
간호사에게 줍니다.



엑스레이 검사

몸 안의 모습을 사진 찍는 것입니다.
검사하는 사람의 안내를 따라합니다.
여러번 찍습니다.



심전도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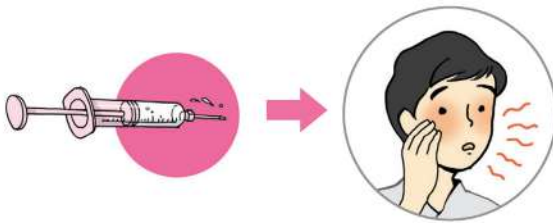
위의 옷을 벗습니다.
내 몸에 여러개의 전선을 연결합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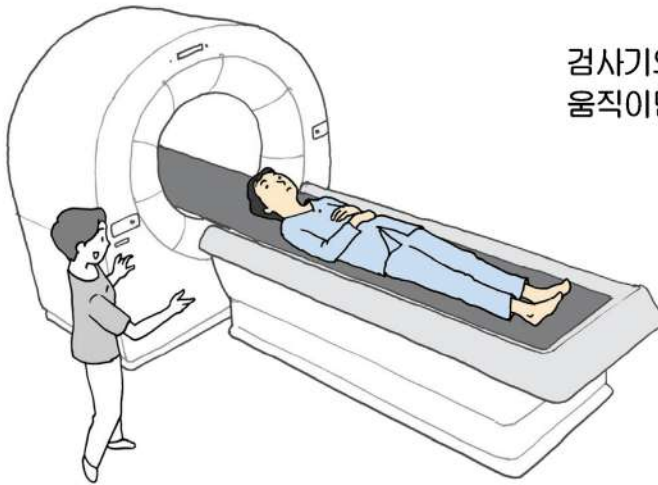
응급실 이용하기
2. 응급실에서 진료 받기

씨티(CT) 검사 받기

몸 안의 아픈 곳을 알기 위해
씨티(CT) 검사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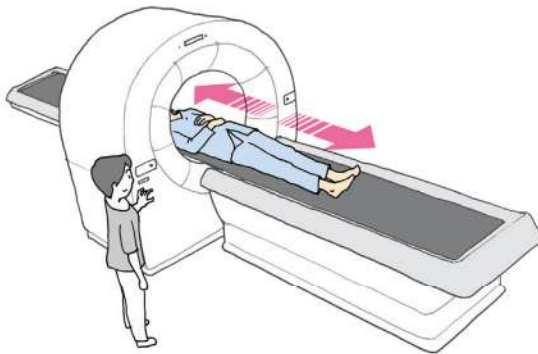
검사약이 들어가면
몸이 화끈거릴 수 있습니다.



검사기의 침대에 눕습니다.
움직이면 안됩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 안으로
몸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검사는 15분 정도
걸립니다.





응급실 이용하기
2. 응급실에서 진료 받기

몸 아픈 것을 진료받습니다



기다리다가
내 치료 순서가 되면,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합니다.



의사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보면,
내가 아픈 곳을 모두 말합니다.



내가 아픈 것을
좀더 정확히 알기 위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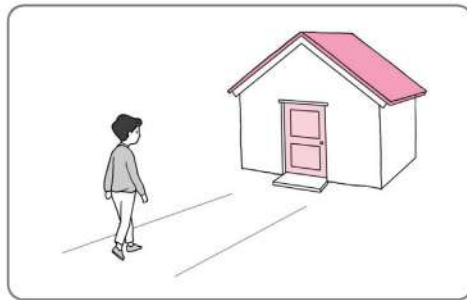
응급실 이용하기
2. 응급실에서 진료 받기

의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치료와 검사가 끝나면,

의사가
내가 왜 아픈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설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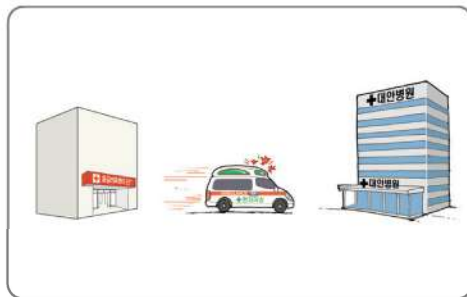
아픈게 심하지 않거나
치료가 간단하면,

집에 가도 된다고 합니다.



아픈게 심하거나
치료가 오래 걸리면,

입원하라고 합니다.



응급실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렵다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응급실 이용하기
2. 응급실에서 진료 받기

진료비를 냅니다



응급실을 나와
안내·수납하는 곳으로
갑니다.



진료비를 냅니다.
돈이나 신용카드를 줍니다.

영수증을 받습니다.



한번 더 병원에 와야 한다면,
병원에 오는 날짜를
알려줍니다.



먹어야 하는 약이 있다면,
처방전을 줍니다.

병원 안에서 약을 받아야 하는지
병원 밖의 약국에서 약을 사는 지
알려줍니다.



응급실 이용에 대해 알아보시다

3

응급실을 나와서 해야 할 것

- 병원 안 약국에서 약을 받습니다
-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삽니다
- 병원에서 알려준 내용을 잘 지킵니다



응급실 이용하기

3. 응급실 나와서 해야 할 것

병원 안 약국에서 약을 받습니다



병원 약국에서
약을 받으라고 하면
병원 약국으로 갑니다.



처방전을
병원 약국 직원에게 줍니다.



알약을 삼키기 어려우면
약사에게 미리 말합니다.



약사가 설명하는
약 먹는 방법을 잘 듣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천천히, 쉽게 설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약 먹는 시간을
약 봉투에 크게
써달라고 합니다.



약을 받아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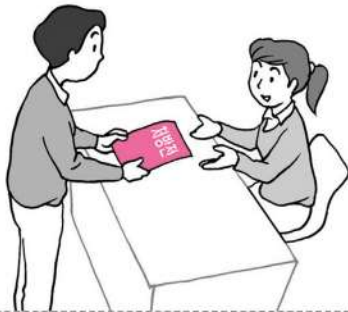
응급실 이용하기

3. 응급실 나와서 해야 할 것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삽니다



처방전을 받았다면,
병원 근처의 약국에 가서
약을 삽니다.



처방전을
약국 직원에게 줍니다.



알약을 삼키기 어려우면
약사에게 미리 말합니다.



약사가 설명하는
약 먹는 방법을 잘 듣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천천히, 쉽게 설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약 먹는 시간을
약 봉투에 크게
써달라고 합니다.



약을 받고
돈이나 신용카드를 줍니다.



응급실 이용하기
3. 응급실 나와서 해야 할 것

병원에서 알려준 내용을 잘 지킵니다



약 먹는 시간에
약을 먹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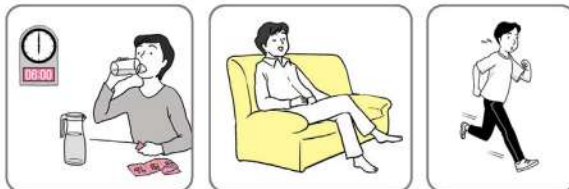
의사나 간호사가 알려주는
치료방법을 따라서 합니다.

상처를 소독합니다.



상처에 연고를 바릅니다.

상처를 밴드나 붕대로
잘 보호합니다.



의사가 말해준 내용을
잘 지킵니다.

■ 기획 보건복지부

■ 집필 (가나다순)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창오 건강의집의원 원장

성명진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이상윤 젊은기획 대표

최미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람중심서비스국장

■ 감수 (가나다순)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살림의원, 서울대치과병원, 서울의료원검진센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한일병원, 송파 나야 나! 자조모임, 송파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이용자 의사소통 지원 매뉴얼

- 응급진료 이용(의료진용) -

발행처 보건복지부

발행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행일 2019.12

디자인 젊은기획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전화 044-202-3296, 3297

※ 본 책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중앙 및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무료로 누구든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과 이용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

※ 본 책자의 내용 중 개선·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보건복지부(044-202-3296, 3297)로 연락주시요, 보내주신 의견은 좀더 나은 자료를 만드는데 귀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